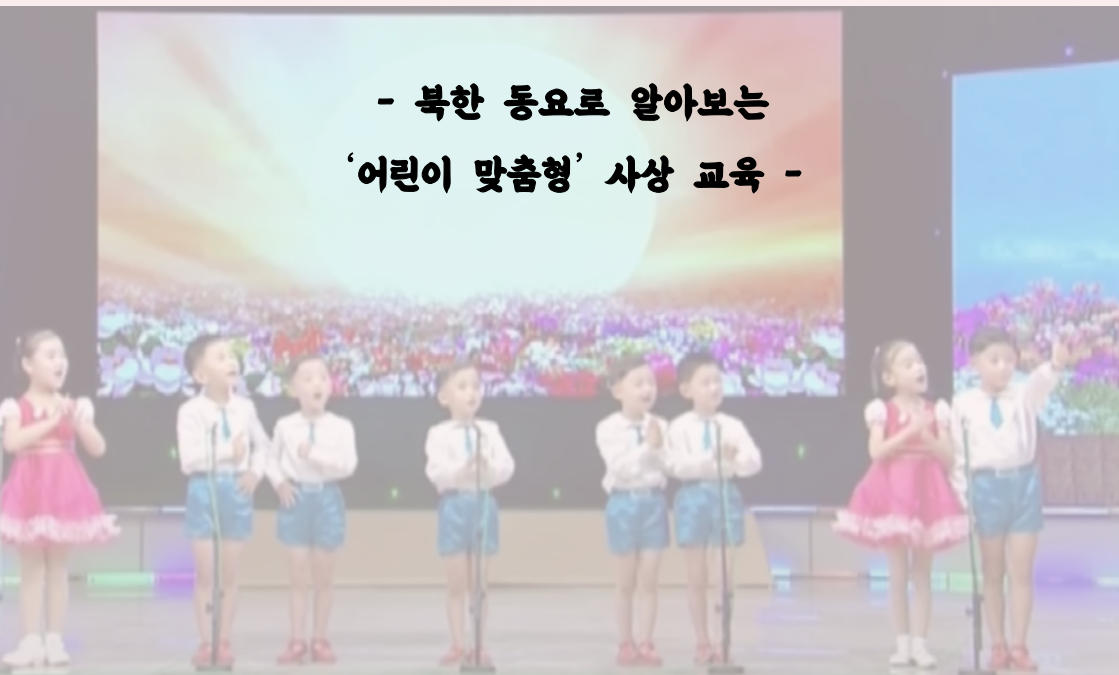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 북한 동요로 알아보는  
'어린이 맞춤형' 사상 교육 -**



**유 다 형**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하는 언니에게,  
그리고 항상 고마운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 북한 동요로 알아보는 ‘어린이 맞춤형’ 사상교육

발행 | 2020년 6월 12일

지은이 | 유다형

펴낸이 | 유다형

펴낸곳 | (주)북한의 인류학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ISBN | 122-41-122-2132-5

값 9,000원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6 북한 동요로 알아보는 ‘어린이 맞춤형’ 사상교육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 북한 동요로 알아보는  
‘어린이 맞춤형’ 사상 교육 -**

**유 다 형**

## 저자 소개

유 다 형

199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이며 인류학을 공부한다.

## 〈목차〉

1. 머리말: 북한 동요, 잘 아시나요? .....	10
2. Why? 북한이 동요에 집중하는 이유 .....	14
※ “어린이는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 .....	15
※ 핵심은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 것 .....	16
3. How? 동심세계 살리기 프로젝트 .....	20
※ 단순한 형식구조: 짧고 간결하게 .....	21
※ 배경은 일상세계: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이야기 ..	23
※ 주인공은 어린이: 묘사대상보다 묘사시점이 더 중요해 ..	25
※ 동심세계 안에서 교육되는 주체사상 .....	26
4. Who? 아동이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 .....	30
※ 학습하기: 멜로디보다는 가사를 .....	31
※ 체화하기: 울동, 표정연기 .....	33
5. 맺음말: 어린이가 나라의 꽃봉오리로 자라나기까지 .....	37
■ 참고자료 .....	40

**1. 머리말**  
**: 북한 동요,**  
**잘 아시나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얼마 전에 북한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유치부중창단 무대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아주 깜찍한 표정과 울동으로 솜씨를 뽐내고 있는데, 가사를 들어보시죠. 조금 황당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수님은 명사수’ 무대 영상)… 참 깜찍하고 귀여운데, 가사 내용은 아이들과 어울리지가 않죠. 이렇게 꼬마들이 부르는 동요에마저도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파고든 겁니다. 순수한 동심을 노래해야 할 아이들에게 찬양 노래라니, 아이들의 상태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MBN News 2015.11.24.)

위는 2015년 11월 24일자 MBN News에서 “깜찍한 어린이 합창단의 반전 가사는?”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원수님은 명사수’ 무대 영상을 설명하는 앵커의 말이다. 북한 어린이들이 깜찍한 표정을 지은 채 울동을 하며 부르는 노래가 ‘김정은 원수님은 명사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북한, 그 중에서도 북한 어린이를 다룬 기사, 영상, 그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어린 나이부터 선전선동 교육을 받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남한에서의 동요는 자연과, 동물, 가족, 생활 경험 등을 소재로 한 동요들이 많으나, 북한 동요는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주의적 사상체계성을 띤 노래가사들이 수집 곡의 비율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최은정 2013:58)

“북한의 동요는 유아의 일상생활과 분리된 노랫말로 사상교육의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며 북한의 동요는 표현과 감상 위주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음악성 발달을 촉진하는 음악 교육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는 면에서 비교육적 매체라 할



수 있다.”(최은정·김영언 2014:205)

위에서 볼 수 있듯, 통일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북한 동요에 대한 연구조차 북한의 선전·선동성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흔히 학술적 연구는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자마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 동요에 대한 연구만큼은 ‘북한’이라는 분단의 벽이 너무 두터운 데다가, ‘북한 체제 선전’이라는 답이 너무 명확한 나머지 ‘북한 동요는 또다른 체제 선전물일 뿐’이라는 분석을 넘지 못했다.

나는 북한 동요에 선전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북한 동요=선전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북한 동요를 단순히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만 볼 경우, 그 연구나 범위, 이해의 깊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 전반에서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술·교육·노동·생활 어느 방면에서든 기승전‘사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인정한 다음 북한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북한 체제 선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저자는 북한의 동요가 선전선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한다. 지적 수준이 낮아 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체제교육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북한 동요에 담긴 선동성에 가려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북한 동요의 어린이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린 아이들은 동요를 어떻게 학습하고, 체제를 체화하게 되는 것일까?

위 물음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북한이 동요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이후 동요들의 특징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 아동문학에서 체제성에 우선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순위가 밀려났던 ‘어린이다움’을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북한 동요에서 드러나는 ‘동심세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심세계 안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교육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아동문학가들이 북한 동요 제작에 쏟은 노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4장에서는 동요를 향유하는 주체인 어린이들에 집중한다. 북한 어린이들이 아동 문학가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동요를 어떻게 교육받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동요 가사와 그 안에 담긴 체제성을 내면화하게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유튜브, 뉴스 등 매체에서 북한 동요를 짙막하게 보았던 사람들, 혹은 북한 동요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주 독자로 선정했다. 당신에게 이 책이 북한 동요를 들여다볼 또 다른 안경이 되길 바란다.

## 2. Why?

### 북한이 동요에 집중하는 이유

## ※ “어린이는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

1992년에 간행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의 제6장의 제목은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으로,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와 그 문학이 어떻게 창작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희곡이나 영화 등은 기타 문학인 반면, 아동문학은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수록되어 있는 순서 역시 시, 소설 다음으로 ‘아동문학’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아동문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아동문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사회가 아동문학을 배우는 당사자, 어린이들을 중히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유년기는 성격, 골격, 가치관이 정립되는 등 사회화의 핵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아기는 사회적 유능성, 정서지능, 자기존중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수행 능력 등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이 학술연구로 증명되었다(최미숙·박지영 2017:374). 동요는 노랫말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이의 언어 발달과 소리 분별력, 기억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최은정·김영언 2014:197). 하지만 북한이 어린이들을 중시하는 데에는 조금 더 독특한 이유가 있음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조국의 앞날과 민족의 전도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문학예술작품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김정일 1992:248)

북한은 정서교육,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유년기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아이들을 북한 사회에 이바지하고, 북한이 지향하는 바를 잘 수행하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또는 북한이 지향하는 바를 잘 수행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사회화’이며, 이 때문에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 유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북한 사회가 둘 중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든, 북한에서는 아동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두 관점을 관통하는 사실이다(최윤정 2009:331). 이에 아동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본질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혁명적 세계관’을 잘 받아들이고 수립하게 하려는 데 있다. 북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하겠지만, 유년기의 가치관이 향후 삶에 특히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동문학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문학 작가들은 북한 어린이들을 철저히 ‘혁명가’로 교양시켜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받게 된 것이다(최윤정 2009:331).

### ※ 핵심은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 것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창작하여야 한다.” (김정일 1992:248)

“아동문학작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그 예술적 가치는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 데 있으며 어린이의 동심에 맞지 않는 아동문학작품은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김정일 1992:249)

북한의 아동문학은 아동을 ‘혁명의 차세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사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장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수령의 혁명역사와 수령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획일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최윤정 2009:328). 하지만 1992년 발간된 『주체문학론』은 아동문학의 창작원리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변화된 시선을 제시한다. 북한 어린이를 ‘공산주의적 인간’,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아동문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함없지만,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그 논의가 변화한 것이다.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에서 과거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단어로 체제교육을 강행했던 아동문학들을 비판한다. 아동문학의 예술적 가치는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동심을 살리면서도 체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했다. 본질적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담은 내용, 수령의 혁명 역사를 담은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이를 ‘형상화’하여 어린이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상성과 예술성은 통일되어야 한다.”(김정일 1992:35)

김정일 시기 이전 문학에서는 오로지 ‘사상성’만을 강조했다면, 김정일 시기 이후부터는 문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사상성과 예술성 모두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아무리 예술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상성이 배제되어 있다면, 예술로서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예술성, 장르적 특성, 예술을 받아들이는 대상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면 그 역시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흠모의 정으로 (♩=96)

작사 신운호, 작곡 리민호

1. 락 원 의 이강산 예 그 미소어리어있 고  
 일 심 의 대오속 예 그 심장고동치여 라  
 (후렴)  
 위 대하 신 어 비이 김 일성대 원수 님  
 영 원 히 영-원 히 우 리와함께계신 다

2. 배푸신 그 사랑은 노래로 울려 풀 없고  
 쌓으신 그 업적은 하늘에 달아 빛나네  
 (후렴)

3. 그 영상 해와 같이 누리를 밝게 비치고  
 그 이름 기발같이 승리로 인도해 주네  
 (후렴)

## 김정은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작사 김현호  
 작곡 립석장

보통속도로 뜨겁게

1. 오 늘 도 학 교 로 가 면 웃 으 며 반 거 주 시 고  
 오 늘 도 공 부 잘 하 라 다 청 히 축 복 하 서 요  
 아 \_\_\_\_\_ 아 버 지 김 정 일 대 원 수 님  
 영 원 한 그 미 소 속 예 우 리 와 함 께 계 셔 요

2. 우리의 행복을 지켜 험한 령 다 넘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펼쳐 찬눈길 다 가셨어요  
 아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  
 영원한 그 사랑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시각자료1, 2]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전후로 비교되는 원수님 칭송동요의 양상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18 북한 동요로 알아보는 ‘어린이 맞춤형’ 사상교육

왼쪽 두 개 악보를 간단히 비교해보자. 좌측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전에 나온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수령송가이고, 우측은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후에 나온 ‘김정은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라는 수령송가이다. 두 동요 모두 ‘흠모’와 ‘뜨거운’ 마음을 담아 부르길 권장하는 대원수님 수령송가라는 데서 공통적이다. 대원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핵심 내용을 공유하는 데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제목이 ‘~계셔요’ 형태로 바뀌면서 노래를 향유하는 어린 아이가 발화의 주체로 바뀐 특징을 보인다. 노랫말 가사를 살펴보면 쓰이는 단어들이 어린 아이들에 맞게 쉽고 생활적인 말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계의 면에서도 좌측은 어린 아이들이 부르기 힘든 ‘높은 파#’까지 음계가 올라가는 반면, 우측은 가장 높은 음계가 ‘높은 레’이다. 위의 예시를 통해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이후에 동요들이 어떤 식으로 ‘어린이 맞춤형’으로 동요를 제작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북한 동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 3. How?

## 동심세계 살리기 프로젝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정일은 아동문학의 핵심이 무엇보다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 것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동요의 지향점은 ‘주체사상교육’에 있다. 그렇다면 예술성과 어린이다움을 동시에 살리면서도 북한 어린이들을 철저히 ‘혁명가’로 교양시켜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받게 된(최운정 2009:331) 아동 문학가들은 어떤 동요를 제작하였을까? 3장에서는 북한 동요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적 특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북한이 동요를 통해 동심세계와 체제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지 알아본다.

.....

#### ※ 단순한 형식구조: 짧고 간결하게

북한 동요는 대체로 길이가 짧고 연령의 특성을 감안하여 쉬운 말, 생활적인 말을 쓴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리 심오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단순화된 형식 구조로 내용을 표현한다. 이 때문에 가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유아들은 어휘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노래의 노랫말은 생활 속에 있는 단어들로 간단, 정확하며 재미 있고 반복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유아들이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고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황옥경 2009:79). 또한 노랫말에는 운율감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너랑나랑 어깨동무쵸

작사 김희선  
작곡 김병화

다정하게 (♩=115)

1. 유치원 우리 반 참 말 좋아요 재미난 그림책도

함께 보아요 랄라 너랑나랑 친한동무쵸

랄라 너랑나랑 어깨동무쵸 너랑나랑 어깨동무

2. 유치원 우리 반 참말 좋아요  
비올 때 꽃우산도 함께 쓰지요  
(후렴)
3. 유치원 우리 반 참말 좋아요  
어깨동무 손을 잡고 함께 놀아요  
(후렴)

[시각자료 3] 단순한 형식구조를 띠는 북한 동요

위 동요를 보면, 10마디로 구성되어 있어 짧고 단순한 동요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를 분석해 봤을 때도 한 소절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가 전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나은 2019:109). 노랫말도 ‘~요’, ‘~쵸’가 반복되는 구어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유치원 어린 아이에게 어렵지 않은 단어가 사용되었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다. 가사를 보면 어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말 좋아요’와 ‘함께 보아요’, ‘랄라 너랑 나랑’과 ‘랄라 너랑 나랑’, ‘친한 동무죠’와 ‘어깨 동무죠’ 각각이 짝이 되어 운율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루는 부분들의 음계에 주목하여 다시 살펴보자. 파란 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참말 좋아요’와 ‘함께 보아요’는 ‘미-파-솔-라’로 동일하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형태이다. 빨간 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랄라 너랑 나랑’을 살펴보면, 음계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음계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차례로 내려오는 음률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록색 박스로 표시한 ‘친한 동무죠’와 ‘어깨동무죠’를 살펴보면 음계가 올라가는 형태로 비슷하다. 이처럼 간단하고 비슷한 어구에 비슷한 음계를 주어 쉽게 받아들이고 흥얼거릴 수 있도록 음률적인 반복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배경은 일상세계: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이야기

“가사를 쓸 때에는 정치사상적 내용을 시적 감정에 담아 생활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가사는 될수록 생활적인 어휘와 형상적인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운율을 잘 조성하여 시적감흥이 안겨오게 써야 한다.”(김정일 1992:38)

동요의 내용이 유아들의 생활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황옥경 2009:79). 하지만 본래 북한 동요동시의 소재는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실성, 조국에 충성하는 혁명적 영웅주의, 나라를 위한 노력 영웅, 계급 연대 등에 국한되었던 특징이 있다(박태일 2016:165-167). 이에 북한은 어린이들과 동떨어져 있는 이

야기를 다루며 사상적 알맹이만을 강조했던 김정일 이전 아동문학의 특징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현실 생활에서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김정일은 동요의 가사가 어린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면서 사상 주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김나은 2019:112).

### 다섯 살에 글공부하지요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수집곡>

최은정 채보곡 No.17



[시각자료 4] 어린이들의 일상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북한 동요

위 동요는 TV 방송에 나가는 노래로 아동음악 경연대회에서 많이 불리어지는 인기 동요이다(최은정 2013:111). 다섯 살에 친구들과 함께 공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24 북한 동요로 알아보는 ‘어린이 맞춤형’ 사상교육

부 시간에 글을 읽어나가는 것은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세계의 이야기이다. 수령을 찬란한 태양으로 모시는 북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동요의 마지막 가사 ‘해님도 부러워서 방긋 웃지요’ 부분이 수령을 형상화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령을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해님이 방긋 웃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으며, 노골적으로 수령 칭송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글공부를 하는 시간이 낮 시간임을 고려해볼 때, 위 동요 내용은 아이들의 시각에서 충분히 발상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 동요는 어린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동요를 제작한다. 경연대회에서도 자주 불리는 인기 동요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5살 아이들이 글공부를 할 때 쉽게 흥얼거릴 법한 노래이기도 하다.

### ※ 주인공은 어린이: 묘사대상보다 묘사시점이 더 중요해

북한 동요는 묘사 대상, 다시 말해 원수님에 대한 혐오의 메시지보다는 묘사 시점(어린이)을 중시하여 어린다운 활동적인 성격, 아이들에 걸맞은 심리 묘사를 하는 데 힘썼다. 어린이 화자들을 의식하면서 어린이 시각에 걸맞게 어떻게 원수님을 자연스레 형상화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쌍쌍 바람아』 예시를 함께 살펴보자.

쌍쌍 칼바람아/날 이겨보련/아이 추워 유치원/못 가게 하련  
장군님 주신 솜옷/후-더워서/단추도야 두알/제끼고 간다  
하하하 네가 졌지/부끄럽니? 나무새로 빠져/뺑소니인 걸  
-리정남, 『쌍쌍 바람아』-

앞의 동요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장군님이 주신 솜옷 덕분에 겨울바람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짧은 동요 속에 이처럼 확실한 종자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다(최윤정 2009:341). 유치원을 가는 중인 어린 아이 화자는 바람과 내기를 거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이 아닌 바람과 경쟁을 한다는 사고방식은 어린이다운 재치 있는 상상력이다. ‘후- 더워서 단추도야 두 알 제끼고 간다’라는 문구는 아이가 말하는 구어체를 그대로 담아놓아 아이의 말투가 생생하게 상상이 갈 정도이다. 바람이 내기에서 져서 나무 사이로 ‘뽕소니’를 친다는 사고 역시도 상상력이 끝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고방식이다. 이에 더해, ‘뽕뽕’, ‘후-’와 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수용자인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자가 바람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장군님 주신 솜옷’이다. 짧은 동요 안에서의 어린 아이다운 재미나면서도 탄탄한 스토리 구성에 ‘장군님 주신 솜옷’이 파고들면서, 자연스럽게 핵심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이 동요가 주체 혁명, 원수님 흙모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다운 시각을 생생히 살리는 것이 오히려 주체 교육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 ※ 동심세계 안에서 교육되는 주체사상

위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북한 동요는 짧고 간결한 형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일상세계를 배경으로 하며, 동요의 주인공을 어린이로 함으로써 동요의 어린이적 특징을 살리고자 노력했다. 주체교육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살리면서도 은근하게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원수님’이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드러나더라도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일 때 한 번 쓰이는 형태이다. 이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를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전략으로, 가히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가사에 정치적 술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정치적인 술어가 한두 개 들어가더라도 적중한 자리에 어울리게 넣어야 한다.”(김정일 1992:38)

김정일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한 동요도 결국에는 정치 선전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술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허나 그는 ‘적중한 자리’에 방점을 찍는다. 정치적인 단어가 한두 개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어울리게끔 넣을 것을 요구했다.

하얀 큰<sup>3</sup>토끼

<민타넷 유학보 동영상 수집곡>  
최은경 제보곡 No.26

[시각자료5]동심세계를 살리며 절정 부분에 자연스럽게 주체교육이 이루어지는 북한 동요



여러 북한 동요들 중 ‘하얀 큰 토끼’는 어린이다운 특성을 잘 살리면 서도 가사의 절정 부분에서 원수님을 자연스럽게 형상화한 동요라고 판단되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동요가 총 20마디라서 짧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10마디 단위로 끊어보면,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어 1절과 2절처럼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 동요 역시 ‘짧은 형식’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것처럼 ‘날 보면 깡충/풀을 달래요’와 ‘앞 발 들고 오뎅/빨간 눈 깜빡’은 서로 쌍을 이루는 구조이다. 위치에 맞게 ‘깡충’, ‘오뎅’이라는 음성상징어가 짝지어 있기도 하고, 음계를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비슷한 음계를 지니고 있어 음률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동요의 소재는 ‘토끼’인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을 주제로 동요를 만들어 친근감을 준다. 수령 찬양, 나라의 영웅과 같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다. 새터민 김정남씨는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북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토끼 가죽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하지만 매번 토끼를 잡을 수 없어 집에서 토끼를 기르는 가정이 많다.”고 밝혔다(최은정 2013:134에서 재인용). 이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북한 가정에서 토끼를 기르고 토끼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동요 속 이야기는 북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이야기일 것이다.

시점 역시 아이들의 시각에서 잘 묘사되었다. 토끼를 바라보며 귀여워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이 잘 드러난다. 토끼가 “풀을 달라”, “맛있다”고 말한다는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이 잘 담겨 있다. ‘깡충’, ‘오뎅’, ‘깜빡’, ‘오물오물’ 등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음성상징어들도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풍부하게 사용되었다.

이 동요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귀여운 우리 집 토끼는 바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하얀 큰 토끼’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갑작스럽고 생뚱맞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탄탄하게 서사를 구성한 뒤, 이렇게 소중한 토끼는 바로 장군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장군님의 은사는 더욱 부각된다. 게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를 살펴보면, ‘장군님 보내주-신’의 음계가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위 동요에서 가장 높은 음인 ‘높은 라’까지 음계가 올라가는데, 장군님을 더욱이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군님 보내주신’의 마지막 ‘신’ 부분은 위 동요에서 가장 긴 박자인 3박자를 차지하고 있고, 뒤에 1박자를 쉬는 구성이다. 장군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더욱이 강조하고, 마지막엔 여운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

.....

우리는 몇몇 북한 동요들을 통해 체제 선전의 표현이 적고 어린이다움을 부각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 동요는 동요라는 장르적 특성에 맞게 동심세계를 충분히 반영하는 예술성을 살리면서도, 예술성과 사상성을 결합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나는 사상성만 강조하는 것보다 예술성과 사상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나라의 꽃봉오리로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고 평가한다. 체제, 혁명과 관련한 어려운 어휘들이 나열되는 것보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기는 동요에 사상성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 선전은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

## **4. Who?**

### **어린이가**

###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

3장에서는 아동 문학가들이 북한 동요에 어린이적 특징을 담으면서도 체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 수행의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어렵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단순히 제작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만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실제로 북한 어린이들이 동요를 어떻게 교육받고, 즐기고 있는지, 가사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내면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 ※ 학습하기: 멜로디보다는 가사를

북한 동요는 예체능 분야가 아닌 아동 ‘문학’의 한 분류로 자리한다. 이는 북한 사회가 동요의 음악적 측면보다 가사를 중시한다는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북한에서 동요는 단순히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문학예술’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아동 ‘가사’가 북한 문학의 특수 장르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아동문학에서 동요, 동시라는 대표적인 서정시 장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별도로 창작되면서 동요, 동시의 하위 장르로서 기능하며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최윤정 2015:324).

“곡이 먼저 된 다음 가사를 붙여도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곡에 가사를 붙이려면 시인이 작곡가의 요구에 매여 ‘창발성’을 잃게 되고 곡의 흐름에 맞게 가사의 운율과 글귀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좋은 가사를 쓰기 어렵다.”(김정일 1992:233)

동요를 비롯한 다양한 노래들의 제작과정을 떠올려보면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작곡한 다음 가사를 입히는 방법과, 먼저 작사

한 다음 곡을 입히는 방법이다. 위 김정일의 말에서 북한 동요가 ‘가사’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는지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가사’ 장르의 후렴, 운율, 대구법이 많이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최은정 2015:332-334). 곡이 붙어져 동요로 향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의 동요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동요는 음의 높낮이가 자유로우며, 유아들이 노래 부르기에 편한 음역으로 만들어진 곡보다는 높은 고음의 곡들이 많다(최은정 2013:56). 동요를 반주할 때에는 아코디언과 손풍금 등 단순한 멜로디를 낼 수 있는 악기만 사용되었는데, 이는 동요의 음악정보보다는 가사를 잘 전달하게끔 하는 교육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다(최은정 2013:57). 동요를 학습하는 데 있어 음악성의 발달보다는 가사 이해에 초점을 두는 교육방식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 소학교 음악교육 방침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 셋째와 넷째는 앞선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셋째, 기악 음악보다는 노래를 중요시한다.

넷째, 노래 창작에서는 곡조보다 가사를 중시한다.” (박윤식 2006:101)

이 방침들은 북한의 음악창작과 음악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소학교 음악교육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효주 전직 북한 음악교사에 따르면, 그가 근무했던 청진 시내에 위치한 평화소학교의 모든 학급에는 발풍금이 있다(유은선 2013:26). 발성부터 가창 지도까지 모두 발풍금으로 이루어지고, 감상지도 역시 발풍금으로 선율만 짚 연결해주고 끝나는 형태이다(유은성 2013:28). 여타 시간은 동요의 가사를 읽고 시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창, 가창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에서 북한 동요가 교육되는 방식으로 는 멜로디, 음악적 학습보다는 가사 학습이 위주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사피어-워프 가설은 언어적 범주가 문화적으로 학습된 존재의 지각을 구조화한다는 가설이다(제리 무어 2017:150). 이에 많은 옹호와 반박이 있겠지만, 언어와 사고는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거리감 없이 체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동요 가사를 이토록 강조하는 데에는, 아이들이 나라의 꽃봉오리로서 적합한 사고체계를 갖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 ※ 체화하기: 율동, 표정연기

북한에서 아이들이 동요를 배울 때에는 율동과 표정연기가 함께 동원된다. 이효주 전직 북한 음악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도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호흡을 할 때, 약간 미소를 머금고 꽃향기를 맡을 때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유은성 2013:28). 음악 학습의 가장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호흡에서 ‘상쾌한’ 감정을 강조하는 데에서 북한 동요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유튜브 영상 자료에서 확인된 바, 모든 동요는 가사에 어울리는 율동과 표정연기가 동원되었다. 율동은 몸 전체 중 손짓과 팔 움직임으로 제한되었지만 굉장히 과장된 모습을 보였고, 표정 역시 눈은 크게, 입꼬리는 한껏 올리는 등 과장되었다. 언어로만 가사를 학습할 때보다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수행할 때, 가사의 의미는 더 잘 이해되며 체화될 수 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율동과 표정연기를 동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둥글둥글 왕감자/대홍단 감자/너무 커서 하나를/못 다 먹었죠  
야하-/감자 감자 왕감자/참말 참말 좋아요/못 다 먹겠죠
2. 호박만한 왕감자/대홍단감자/장군님 사랑 속에/풍년 들었죠  
야하-/감자 감자 왕감자/참말 참말 좋아요/풍년 들었죠

-『대홍단 감자』-



[시각자료 6] 율동과 표정연기가 동원되는 북한동요 ‘대홍단감자’

‘대홍단 감자’를 부르는 아이는 이효주 교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내내 웃음을 일관하며 호흡하고 있었다. 가사와 율동을 살펴보면, ‘너무 커서’, ‘호박만한’과 같이 크기를 강조할 때는 팔을 둥글고 크게 앞으로 뻗는다. ‘못 다 먹겠죠’ 가사에서는 좌우로 손을 흔들며 본래 웃는 표정에서 더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욱 과장된 미소를 띤다. 후렴 부분인 ‘감자 감자 왕감자’를 부를 때는 오른손, 왼손 순서대로 손을 앞으로 뻗고 ‘왕감자’ 부분에서 둥글게 뻗는다. ‘정말 정말 좋아요’에서는 두 손 앞으로 모으며 과장된 미소를 띤다. 해당 동요의 형상화된 핵심 가사라고 할 수 있는 ‘장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죠’에서는 리듬을 타거나 잦은 울동을 하기보다는 내내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며 올리는 울동을 하였다. 특히 ‘장군님’이라는 가사는 ‘장~군님’처럼 발음을 길게 늘이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의 동요 가창과 울동 연행을 모두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든 생각은 ‘울동이 가사에 굉장히 솔직하다는 점’이다. 하체보다는 상체의 두 손, 팔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가사와 직관적으로 어울리는 단순한 울동을 하였다. 이에 울동을 외우기도 쉽고, 가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울동을 하는 데 상체 동작이 주를 이룬다는 점은 북한 무용과도 공통되는 지점이다. 북한 무용 역시 상반신의 움직임이 매우 다양하며 팔 동작이 주를 이루어 연행되는데, 이는 무용수의 동작을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야기한다(신해은 2016:81). 김정일은 “조선춤은 팔놀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룰동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신해은 2016:81에서 재인용)이라며 조선의 특유의 민족적 정서를 담은 몸짓을 설명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대흥단 감자’를 부른 아이도 어려서부터 조선의 민족적 정서를 체화하고 그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 번 그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북한 어린이들은 동요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동요의 가사를 몸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차 그 가사를 익히게 된다. ‘백각이 불여일행(百覺而不如一行): 백 번 깨우침보다 한 번 행함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언어나 개념은 그와 걸맞은 행동을 동시에 할 때 그 의미를 진



정으로 이해하기에 좋을 것이다. 율동은 가사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체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나라의 꽃봉오리상(像)’에 다가가게끔 유도한다. 북한 사회가 제시하는 인민으로서 적절한 몸가짐을 형성하고, 율동과 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를 내면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 어린이들의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집중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나라의 꽃봉오리상’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쉬운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율동, 표정 등 쉽고 단순하면서도 가사에 솔직한 몸짓과 함께 동요를 학습하면서 ‘나라의 꽃봉오리상’에 적합한 태도를 갖추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라의 꽃봉오리상’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일 기회가 되어 직접 북한 어린이들의 동요 가창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요에 대한 인식과 ‘나라의 꽃봉오리상’ 관념, 몸의 습관 등에 대한 더욱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5. 맺음말:  
어린이가  
나라의 꽃봉오리로  
자라나기까지**

우리는 북한 동요가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동요라는 장르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그 안에 사상성을 녹여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 사회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 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고안되어야 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동심세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동요의 구조, 배경, 주요 인물 모든 것이 어린 아이들 ‘맞춤형’이었다. 짧고 간결한 구조를 갖춘 동요의 배경은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세계였으며, 동요의 주인공은 단연코 ‘어린이’였다. 대부분 동요의 핵심 메시지가 ‘수령님 찬양’에 관한 내용이지만, 충분히 구축해놓은 동심세계 안에서 그 내용은 물 흐르듯 받아들이기 쉬운 법이었다. 오히려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나라의 꽃봉오리로 기르도록’ 하는 전략이 성공적인 것이다.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동요, 특히 그 골자를 담은 가사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 부분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엿볼 수 있었다. 동요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특히 ‘가사’에 주목하는 경향은 언어가 사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결부해볼 때 그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북한 어린이들의 동요 가창 영상을 보면, 어린이들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걸맞은 담백하고 쉬운 율동을 항상 병행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가사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과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은 가사 내용을 더욱 내면화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아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상’에 적합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나”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은 의미화 구조, 즉 “나”라는 대명사를 정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일컫는지를 단속하는 규칙들, 그 대명사가 인지되어 순화할 수 있는 용어들을 수립하는 의미화 관행들에 의해 제공된다. …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의미화된 것은 어떤 주어진 한 시점에 의미화된 것이다.”(Butler, Judith, 1999: 서유경 2011: 43에서 재인용)

버틀러가 ‘의미화’에 대해서 반문했던 것처럼, 북한의 어린이를 칭하는 ‘나라의 꽃봉오리’ 역시 그 자체로 의미였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미화된 것일지 모른다. 북한 사회가 양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어린이상(像)에 맞게 동요 가사가 만들어지고, 그에 맞는 음계가 붙고, 이를 교육하고 몸짓으로 수행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어린이=나라의 꽃봉오리’라는 의미화 관행을 굳건하게 한 것일지 모른다. 이렇게 북한 어린이들은 동요를 통해 수동적으로 체제 교육을 ‘받는’ 존재를 넘어, 적극적으로 체제 교육을 체화하고 ‘수행’하는 존재로 성장한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요와 율동을 즐기는 과정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은 자발적인 체제 참여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 ■ 참고자료

### <저서 및 논문>

김나은, 2019, ‘북한 동요의 특징 분석 : 새 노래 종합본 22 ~29호를 중심으로’

박윤식, 2006, ‘북한: 교과서로 읽는 북한이야기28; 북한 음악의 특징 - “가사 통해 의사전달 가능한 성악곡 중시한다”, “통일한국” 269권 0호, 평화문제연구소, pp.100-101

박태일, 2016, ‘동요동시집 『영웅 나라 아이들』의 애국주의 -전쟁기 북한 어린이문학 연구’, “동화와 번역” 31권 0호,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pp. 131-173

서유경, 2011, ‘버틀러(J. Butler)의 “수행성 정치” 이론의 정치학적 공헌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19권 2호, 대한정치학회, pp. 31-58

신해은, 2016, ‘무대 위의 북한: 탈북공연예술단체의 연행과 재현’

유은선, 2013, 『북한의 예술교육: 북한음악 구술 자료집』, 서울: 국립국악원

제리 무어, 2017,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서울: 한길사

최미숙·박지영, 2017, ‘유아 성격이 누리과정 영역별 발달에 미치는

나라의 꽃봉오리여, 잘~ 성장해다오!

영향’, “아동교육” 26권4호, 한국아동교육학회, pp.373-388

최윤정, 2009, ‘1990년 이후 북한 아동문학의 흐름 -동요, 동시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권 0호,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pp. 327-353

\_\_\_\_, 2015, ‘북한 『아동문학』에 수록된 "가사" 연구’, “동화와 번역” 29권 0호,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pp. 323-343

최은정, 2013, ‘북한 동요의 수집과 특성연구’

\_\_\_\_·김영연, 2014, ‘북한 동요 분석을 통한 통일대비 유아음악교육 방안 고찰’, “음악교육공학” 제18호, 한국음악교육공학회, pp. 195~208

황옥경, 2009, ‘7차 유치원 지도서에 수록된 동요 분석’, “실천유아교육” 14권1호,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pp.73-103

#### <북한 원자료>

김정일, 1992, 『주체 문학론 -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평양: 조선로농당

『아동문학』, 2002.1,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새 노래 종합본』 25호

### <영상자료>

MBN News, 2015.11.24.,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깜찍한 노래의 '반전'은?!', <https://www.youtube.com/watch?v=2EIF42Nd108>,  
2020.06.02. 접속

### <시각자료>

김나은, 2019, “북한 동요의 특징 분석-『새 노래 종합본』 22~29호를 중심으로-”

최은정, 2013, “북한 동요의 수집과 특성 연구”

유튜브, 2013.06.15.,  
<https://www.youtube.com/watch?v=JnAW35KOeTQ>,  
검색일 2020.05.31. 접속

Google 검색, 평양소식 ‘김일성 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20.05.31. 접속





직접 책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많은 도움을 주신  
정향진 교수님께,  
책을 만드는 데 아낌없이 조언해주셨던  
조교님들께,  
그리고 <북한의 인류학> 학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0. 06 유 다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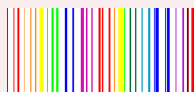




**은밀함 속에서 더욱 성공적일 수 있는  
나라의 꽃봉오리 키우기 전략,  
북한 동요를 살펴보며  
북한 동요가 철저히 계획된  
‘어린이 맞춤형’ 사상교육임을 밝힌다!**

이 책은 북한 동요가 체제 선전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독자들과 북한 동요의 세계로 떠난다. 이 책은 실제 북한 동요와 악보들을 살펴보면서, 수령이 아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오히려 ‘아이들을 나라의 꽃봉오리로 기르기’ 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북한 동요, 교육 방식, 율동의 수행이 ‘나라의 꽃봉오리상(像)’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북한 어린이들이 ‘나라의 꽃봉오리’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북한 동요의 세계로 떠나보자.



ISBN 122-41-122-2132-5

값 9,000원